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 6:9-15)

I. 말씀 나누기 (10분) - 성경 본문을 한 번 더 읽으신 후 말씀을 나눕니다.

1.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마 18장에서는 1만달란트 빚진 자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2.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용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나는 주님께로부터 용서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표시입니다. (롬 5:6-10)

우리가 짊어진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도무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그 용서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3. 우리가 먼저 용서하면 어떤 열매가 생길까요?

용서는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앙리코의 용서'라는 영화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두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것은 한 트럭분의 공짜 목재가 아니라 그 건축업자의 용서였다.'

4. 아직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는 나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의 감정은 용서의 행동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용서가 상대방 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나 자신도 변화시키는 거죠. 예) 코리텐봄 여사의 용서

5.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사탄에게 어서 오십시오 라고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나는 용서받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결국 용서는 그 사람도 사는 길이요, 나도 사는 길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6. 이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나도 용서받지 않겠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아직도 매일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범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함께 사는 것이요, 용서하지 못하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죽는 것입니다.

II. 삶의 적용 (25분)

1. 나에게 아직도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2.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지금 당장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